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EXTRAORDINARY ADVENTURES

가제 : 비상한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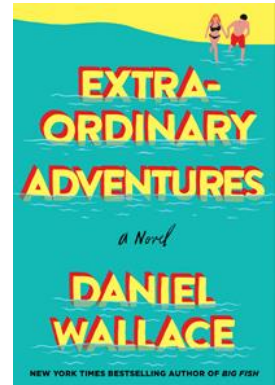
저자 : Daniel Wallace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7년 5월 30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순수문학



- * 영화로도 큰 인기를 얻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BIG FISH』 저자의 신작 소설
- * “주인공 에드셀은 지금껏 본 중에 가장 특이하고 내성적인 인물이다. 내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든 그에게 폭 빠지고 말았다.” - 『Crazy in Alabama』의 작가 마크 칠드레스
- * “심오하고, 웃기고, 현명하고, 놀랍도록 섹시한 소설. 지도 한 장 없이 잃어버린 마음속의 목적지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 - 『This Dark Road to Mercy』의 작가 와일리 캐시

‘비상한 모험’에서 전화가 걸려온 건 아직 해가 다 지지 않은 이른 저녁이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낯선 여자 목소리는 에드셀 브론프먼 씨를 찾는다고 말했다. 에드셀이 바로 자신임을 밝히자, 그녀는 느닷없이 “당첨되셨어요!”라고 외쳤다. 무슨 영문인가 싶어 에드셀이 잠깐 할 말을 잊은 동안 수화기 너머로 똑같은 말을 외치는 다른 목소리들이 배경음악처럼 들려왔다. 에드셀이 정신을 차리고 설명을 들어보니, 플로리다 주 바닷가에 새로 지어진 고급 콘도에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단다. 유럽식 조식까지 포함되어있다는 숙박권은 수수료나 추가 비용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콘도 측에서 준비한 업체 광고와 지역 소개 영상을 한 시간 정도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에드셀은 34년 평생 당첨은커녕 행운이 따른 역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어떤 상황에서든 늘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떠올리는 습관이 있는 남자라, 일단 이런 갑작스러운 통보가 영 못 미더웠다. 신청한 적도 없는 경품에 당첨이라니? 에드셀이 의심스러워하자 상담원은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명함을 넣은 적이 정말 한 번도 없느냐고 되물었다. 그제야 에드셀은 자주 가는 식당에서 딱 한 번, 명함을 넣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 수많은 명함 중에 자신이 행운을 거머쥐다니! 그제야 뒤늦게 에드셀은 신이 났지만, 상담원은 뜻밖의 조건을 이야기했다. 이 숙박권은 2인 사용권이니, 반드시 함께 묵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

인이든 친구든 누구든 함께 가야 하고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79일 뒤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단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이 조건이 에드셀에게는 가장 난감한 장애물이었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지만, 주말 내내 해변을 돌아다니고 같은 방을 써도 불편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 정말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이대로 굴러온 행운을 포기해야 할까?

한국산 식기류를 수입하는 업체에서 배송 관리자로 일하는 에드셀 브론프먼의 삶과 행동 반경은 딱 세 가지로 정리된다. 회사, 첫 달 임대료가 무료라는 광고에 속아서 열월에 계약한 허름한 아파트, 치매에 걸려 변덕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엄마까지, 이 세 가지가 돌고 돌며 에드셀의 생활을 채우고 있었다. 절친한 친구는커녕 여자와의 데이트도 아무 진척 없이 두서너 번 만난 것이 전부인 그에게, 어느 날 ‘비상한 모험’이라는 업체가 선사한 행운은 엄청난 변화의 씨앗이 된다. “79일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라고 말하던 상담원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찾아온 기회를 일단 쥐어보기로 결심한 에드셀은 주말을 호화로운 콘도에서 함께 보낼 사람을 찾아 나서고, 익숙하고 늘 절어 있던 곳에서 벗어난 에드셀의 앞에는 울퉁불퉁 꼬불꼬불한 길과 급회전 구간이 기다린다. 마약에 빠져 사는 이웃 토머스 에디슨, 과하게 친절한데다 프랑스어 억양이 계속 오락가락 하는 묘한 사진작가 크루통, TV 드라마라면 모조리 섭렵하면서 이케아에서 사용설명서 쓰는 일을 평생 꿈으로 간직하며 사는 접수처 직원, 사는 게 시들해진 경찰관 등 코믹한 주변 인물들이 주변을 맴도는 가운데 에드셀은 여태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외로움을 처절하게 느낀다.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로지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하는 에드셀의 이야기에는 현실을 노골적으로 그리면서도 유쾌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고, 작가 특유의 따스한 감성과 유머 감각이 그대로 녹아 있다.

<저자 소개>

대니얼 월리스(Daniel Wallace)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로 글쓰기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한나 틴티, 팀 오브라이언 등 유수의 작가들이 대니얼의 팬임을 자처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Big Fish』, 『Ray in Reverse』, 『The Watermelon King』, 『Mr. Sebastian and the Negro Magician』, 『The Kings and Queens of Roam』 등이 있다.

제목 : THE CACTUS

가제 : 선인장

저자 : Sarah Haywood

출판사: (에이전시) Lutyens & Rubenstein

발행일: -

분량 : -

장르 : 소설/순수문학

Lutyens
&
Rubinstein

- * 『로지 프로젝트』의 돈 털먼 교수처럼 주변 사람을 분통 터지게 하면서도 한껏 유쾌하고, 타협이 라곤 없는 ‘센 언니’ 여자 주인공의 멋진 변화를 그린 소설
- * 재미와 웃음 속에 진한 감동과 온기가 담긴 데뷔 소설

런던에 사는 수잔에게 버밍엄의 엄마 집에 얹혀 사는 오빠 에드워드가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왔다. 구역질이 올라와 이미 잠이 다 깬 수잔은 엄마에게 번고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역시나, 에드워드는 간밤에 뇌졸중으로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새벽까지 친구와 맥주를 마시고 집에 왔더니 엄마 방에 불이 켜져 있기에 이상해서 들여다보니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단다. 오빠는 엄마가 갑작스레 이렇게 되다니 너무 충격이라고 말했지만 수잔은 그렇지 않았다. 수잔의 기준에서는, 엄마 연세가 일흔여덟이고 뇌졸중을 두 번이나 겪었으니 충분히 예고된 일이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오빠에게 수잔은 일단 출근을 해야 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냉정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내무부 공무원인 그녀는 사무실에는 엄마의 사망 소식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료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사람들을 감당할 자신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여느 때처럼 보고서를 쓰느라 점심도 비스킷으로 때운 채 하루를 보낸 수잔은 퇴근 후에야 새벽에 들은 소식을 다시 떠올렸다. 그 사이 오빠는 장의사를 부르고 장례식 날짜를 정했다고 알렸다. 화장을 치르자는 말에 수잔은 바로 동의했다. 축축한 흙 속에 죽은 사람을 묻고 부패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녀에게는 화장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다. 비석을 세우고, 죽은 사람의 넋이 기다리기라도 하는 양 무덤가를 찾아가 꽃을 놓고 허공에 말을 거는 것 역시 수잔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던 장례 준비는 며칠 후, 또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면서 수잔의 발목을 잡는다. 있는 줄도 몰랐던 엄마의 유언장이 변호사를 통해 공개됐는데, 어릴 때부터 가족이 함께 살던 집과 세간을 전부 에드워드 오빠에게 물려준다는 것이다. 대체 왜? 엄마가 오빠에 대한 편애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내다니, 수잔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절대 이대로 가만히 당하지 않으리라 이를 갈았다.

소설 첫 머리에서 수잔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억울한 심정을 감추거나 동의할 수 없는 의견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투덜대는 타입도 아니며, 타인의

의중을 깊이 고민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이기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며, 누가 이용당할 때 모른 척하지도 않고 자신이 이용당하는 일도 참지 않는다고 말한다. 논리와 정의, 그것이 마흔다섯인 수잔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꾸려온 비결이었다. 좋은 직업과 괜찮은 집까지 장만하고 적당히 사교생활을 즐기며 살아온 수잔과 달리 오빠 에드워드는 의지박약에 늘 제멋대로 살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다. 나이 마흔에 지낼 곳이 없어 엄마가 사는 집에 다시 들어간 오빠와 수잔은 최대한 마주칠 일을 만들지 않으며 살았다. 그런데 부모님의 큰 재산이라곤 하나뿐인 그 집을 전부 오빠에게 주다니? 수잔은 아버지가 오래 전 돌아가신 뒤 엄마를 극진히 보살피지 않은 건 인정하지만, 나름대로 딸의 몫은 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래서 엄마의 유언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일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수잔은 오빠가 마침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쯤 집에 함께 머물고 있던 친구 롭과 함께 엄마를 꼬드겨 그와 같은 유언장을 쓰게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증거를 찾아 나선다. 그러나 일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어쩌면 뱃속에 아이가 생겼을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까지 생기면서 그간 힘들게 만든 평온한 일상이 다 무너지게 생긴 것이다. 잇따른 충격과 감당 안 되는 일들은 정신력이 철옹성 같던 수잔마저 이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희망을 감지한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여자로 사는 것, 그리고 엄마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위트를 담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한 수잔의 이야기는 깊숙한 곳에 잠자던 감성을 깨우며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불어 넣는다. 거칠고 차가운 투사 같던 수잔이 서서히 밝게 피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을 안겨 준다.

<저자 소개>

새라 헤이우드(Sarah Haywood)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고 런던과 버кен헤드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후 맨체스터에서 변호사 대상 불만사항을 조사하는 조사관을 맡았다. 현재는 리버풀에 살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GODDESS OF FATE AT SALON D'AMOUR

가제 : 헤어 살롱에서 만난 운명의 여신

저자 : Anna Jansson

출판사: Norstedts (스웨덴어 원작)

발행일: -

분량 : 326 페이지

장르 : 소설/로맨스 소설



- * 2014년 출간 후 스웨덴에서 135,000부 이상 판매되며 큰 인기를 누린 로맨틱 소설
- *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터키 판권 계약 체결
- * “범죄 소설의 여왕이라 불리는 작가가 기분 좋은 편안함을 선사하는 소설. 훌륭하고 재미 있는 이야기다.” – 스웨덴 신문 「Västerbottenkuriren」

스웨덴 동부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바다에 떠 있는 고틀란드 섬에는 특별한 미용사가 살고 있다. 안젤리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유적지로 유명한 돌 벽에 둘러싸인 마을, 비스뷔에서 7년째 헤어 살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표면적인 직업이 그것일 뿐, 안젤리카의 진짜 실력은 다른 영역에서 빛을 발해왔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노른’, 즉 운명의 여신 역할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운명이 담긴 실타래를 손에 쥐고 둘을 서로 엮어줄 것인지 아니면 캄캄한 밤에 소리 없이 지나치는 바다 위의 배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게 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알려진 노른처럼 안젤리카는 상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가장 어울리는 상대를 찾아 은근슬쩍 엮이게 만드는 능력이 탁월했다. 피아노 위에는 그녀가 부부의 연으로 이어준 스물여섯 쌍의 사진이 트로피처럼 자랑스레 놓여 있을 정도였다. 미용실을 찾아와 가운을 걸치고 거울과 마주한 순간, 안젤리카는 뒤에서 거울을 함께 바라보며 손님에게 가장 어울릴 만한 헤어스타일은 물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바로 간파한다. 분석이 끝나면, 안젤리카의 머릿속은 꼭 맞는 짝을 찾아주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떠올리느라 분주하다. 단 두 개밖에 없는 미용실 의자, 그 옆에 앉는 사람은 그녀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 시작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속에 잠자는 잠재력을 일깨우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이 안젤리카의 지론이다.

가히 사랑의 스튜디오라 할 수 있는 안젤리카의 헤어 살롱에서는 그녀만의 원칙에 따라 손님 네 종류로 분류된다. 실의에 빠져 기가 짝 죽은 손님(D), 어쩌다 우연히 들른 손님(A), 단골 손님(E),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 타입의 손님(N)이다. 하지만 가장 잘 맞는 짝을 찾아내는 안젤리카는 분류를 더욱 세분화했다. 짝이 얼마나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여 그 정도를 숫자로 표시한다. 가령 안젤리카의 수첩에 ‘N5’라 표시된 사람은 자신이 더 할 나위 없이 매력적이라 믿는 사람이며 현재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뜻이다. 라디오 방송

국의 기자로 일하는 완벽주의자, 군나르가 바로 그 유형에 속했다. 안젤리카는 통통한 여성을 좋아하는 군나르의 취향을 고려하여 체중관리 업체를 찾아 다니는 여성들 중에 후보를 물색한다. 역시 이번에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별로지만 안젤리카의 눈에는 군나르에게 꼭 맞는 후보가 눈에 들어오고, 안젤리카는 큐피트의 숨씨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수많은 연인을 탄생시킨 안젤리카에게는 짝이 있을까? 얼마 전부터 헤어 살롱에서 일하는 순진한 청년 릭키는 문득 그런 의문을 떠올리고, 7년 전 안젤리카가 사랑한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현대판 운명의 여신은 여전히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릭키는 늘 다른 사람의 사랑을 찾아주는 일에 몰두하는 사장님을 위해 자신이 새로운 사랑을 찾아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착한 소망은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는다. 진행성 암으로 고통 받고 있던 한 남자에게, 안젤리카에 관한 이야기와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릭키의 진심 어린 마음이 감동을 준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를 ‘신밋드’라 부르는 그에게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사랑을 전하고픈 상대가 있었고, 안젤리카는 신밋드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돕다가 그에게 사랑을 느낀다. 늘 사랑의 방향을 먼저 정해주는 일에 도가 튼 그녀에게 사랑의 감정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고, 급기야 신밋드마저 안젤리카를 특별히 여기기 시작하면서 일은 점점 복잡해진다. 못된 사기꾼까지 등장하여 안젤리카의 혼을 빼놓고, 주변 인물들이 뒤죽박죽 그 일에 얽히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진다. 과연 안젤리카는 다시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사랑도 찾을 수 있을까?

안젤리카가 엮어주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친근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안젤리카의 시선에는 애정과 따스함이 가득하다. 그 깊은 관심을 몰래 숨기고 우연을 가장하여 사랑에 빠지도록 이끄는 매력적인 주인공의 이야기는 범죄 소설 전문가인 작가가 썼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로맨틱 코미디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준다.

<저자 소개>

애나 얀슨(Anna Jansson)은 수년 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 싶다는 생각에 소설가가 되었다. 이후 삶과 죽음에 관한 인상적인 이야기를 발표하며 주목 받기 시작했다. 2005년 발표한 『The Silver Crown (Silverkronan)』은 5만 부 넘게 판매되었고 2006년에는 『Strange Bird (Främmande fågel)』가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우수 범죄소설에 수여되는 문학상 ‘The Glass Key(Glasnyckeln)’의 후보에 올랐다. 여러 작품들이 아이웍스(Eyeworks) 프로덕션을 통해 TV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어 스웨덴과 독일,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의료계의 윤리적 실태를 다룬 강연에도 참석하면서 어린이 도서 등 다양한 장르의 글에 도전하고 있다.

제목 : THE YOUNG WIVES CLUB

가제 : 어린 아내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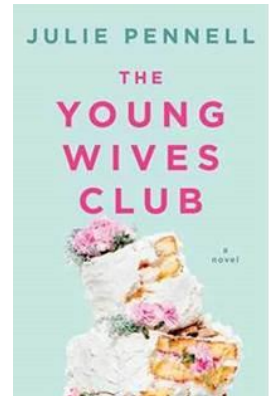
저자 : Julie Pennell

출판사: Atria/Emily Bestler Books/Alloy Entertainment

발행일: 2017년 2월 1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여성소설



* <가십걸>, <뱀파이어 다이어리> 등 YA 시리즈 도서를 인기 드라마로 탄생시킨 알로이 엔터테인먼트가 선택한 데뷔 소설

* 인기 미국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 영화 <산드라 블록의 행복한 비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네 여자주인공의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

로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래 미식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인기 스타였던 브라이언과 결혼을 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 스카우트된 브라이언은 결혼 후에도 탁월한 기량을 뽐내며 경기장을 누비고 다녔다. 그의 재능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로라는 개인적인 꿈이나 대학생생활까지 다 포기하고 그와의 결혼을 택했다. 브라이언의 삼촌은 미식축구 전설로 불리는 인물인데, 20년쯤 지나면 브라이언도 삼촌처럼 은퇴 후 ESPN에서 해설자로 일할 수 있을 테니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로라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브라이언을 응원하러 간 경기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불과 6개월 전, 졸업식을 며칠 앞두고 그와 단둘이 호숫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날 브라이언은 깜짝 프러포즈로 로라를 놀라게 했다.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와 함께 할 때마다 느꼈던 행복한 기분이 그런 우려마저 눌렀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라에게는 브라이언이 시골 구석이나 다름없는 루이지애나 툴루즈에서 공장 벗어나게 해줄 탈출구가 될 남자였다.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로라는 파릇파릇한 새댁이자 남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꿈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로라가 경기장에서 프러포즈 받던 날을 떠올리던 그날,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 브라이언이 경기 도중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이다.

메디슨은 초등학교 때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배우고는 아빠 담배를 몰래 숨겨서 버릴 정도로 걱정이 많은 아이였다. 하지만 이제 성인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메디슨은 담배 없이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고된 생활을 이어갔다. 폐암 판정을 받고도 술과 담배를 손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아빠와 생계를 대신 짊어지느라 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엄마는 가난의 깊고 끈질긴 고통을 제대로 느끼게 만들었다. 집안 살림은 메디슨의 어깨에 더 큰 무게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메디슨에게,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인 조지가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다. 사실 메디슨은 음악 하는 남자 캐시 로메로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와 만나고 있었지만, 전형적인 '나쁜 남자'인 캐시는 그리 좋은 상대가 아니었다. 조지의 관심은

그런 캐시마저 질투심을 느끼게 만들었고, 메디슨은 그 사실이 좋았다. 게다가 조지는 부자라 비싸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꿈도 꾸지 못할 가격의 선물도 덩석 안겨주며 메디슨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기 시작했다.

클레어의 장래희망은 한결 같았다. 현모양처,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는 것이다. 영리하고 믿음직한 개빈과 열아홉 살에 결혼을 하면서 그 꿈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았다. 수많은 신도들이 열렬히 따르는 목사님인 남편을 성심 성의껏 뒷바라지하고 힘든 교회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맡아 하는 생활은 분명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벅차 올랐다. 여섯 살 때 엄마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빠 때문에 홀로 돈을 버느라 고생만 한 엄마를 생각하면, 이토록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가브리엘에게도 평생을 함께 하자고 무릎 꿇고 청하는 멋진 남자가 나타났다. 어느 소녀들이나 그렇듯 가브리엘도 그런 사랑이 찾아오기를 늘 고대했지만, 토니만큼 완벽한 사람이 자신의 짝이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다. 잘 생긴 외모에 다정다감하고 예의 바른 토니는 머리도 좋는데다 루이지애나 주 지역위원의 아들이자 주지사의 손자였다. 그야말로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백마 탄 왕자님인 그는 가브리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주었다. 가브리엘도 클레어처럼, 믿기 힘들 만큼 벅찬 행복을 느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꿈이 아닌지 살을 꼬집어보곤 했다.

총 인구가 2100명 남짓한 작은 마을 툴루즈에서 함께 성장한 로라와 매디슨, 클레어, 가브리엘은 어린 나이에 평생의 사랑을 만나 아내가 되었다. 그대로 고등학교 시절 모두 꿈꾸었던 해피엔딩이 되길 기대했지만, 삶은 급커브로 네 사람을 끌고 간다. 큰 부상을 당한 로라의 남편 브라이언은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활 훈련에 매진하는 대신 술을 퍼 마시기 시작한다. 갑자기 두 남자 사이에 끼게 된 매디슨은 예상치 못한 큰 상처를 입고 만다. 행복감에 젖어 살던 클레어는 목사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에게서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한 번 금이 간 마음은 회복되지 못한다. 가브리엘은 토니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위험한 거짓말을 택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차 없이 잘라내기로 악명 높은 토니 아버지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브리엘은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학력마저 속이기에 이른다. 위기에 빠진 네 사람은 이 위태로운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극복해보려 안간힘을 쓰고, 사람의 감정과 마음이 걸려 있는 일에 결코 쉬운 해답은 존재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다. 그리고 진짜 행복의 의미를 배워간다.

<저자 소개>

줄리 펜넬(Julie Pennell)은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나 십대 시절 지역 신문에 매주 칼럼을 기고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뉴욕으로 옮겨 가 「Seventeen magazine」에서 일하다가 알로이 엔터테인먼트(Alloy Entertainment)에서 디지털 편집자로 일했다. 「Teen Vogue」, TODAY.com, 「The Nest」 등에 정기적으로 글을 싣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BREAKING INTO THE BOYS' CLUB

가제 : 남자들 세상에 뛰어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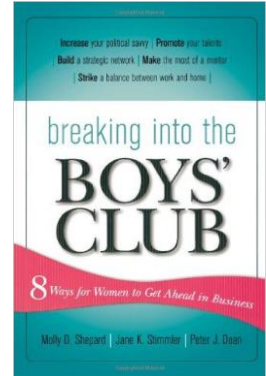
저자 : Molly D. Shepard, Jane K. Stimmeler

출판사: M. Evans & Company

발행일: 2009년 5월 16일

분량 : 21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처세



- *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기가 꺾이는 것이 지긋지긋한 여성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 * 업무 능력은 뒤지지 않는데 승진이 가로막히는 여성들, 유리 천장을 뚫고 위로 올라서는 여덟 가지 해법

미국은 물론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서 CEO나 COO 등 고위직에 오른 여성들의 소식을 이제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여성들이 일터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비율이 높아진 건 분명 사실이지만, 조직의 상층부를 살펴보면 여전히 남성들이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미국의 상위 500개 기업 가운데 중간관리자가 여성인 경우는 절반 정도이지만 회사 경영자가 여성인 업체는 4.2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사직의 여성 비율은 17 퍼센트, 임원의 비율도 14.3 퍼센트에 그친다. 남성과 똑같이 대학교육을 받고 노동력의 절반을 구성하는 상황에서, 영향력 있는 고소득 직위에서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무엇이 이런 불균형을 만들었을까? 이 책은 다양한 사례와 퀴즈, 팁의 형태로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지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오랜 기간 리더십 코치로 활약해 온 저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경험하고 지켜본 일들을 토대로, 여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소개한다.

여성들이 업무 능력에서 남성들에게 뒤처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교육 수준이 부족하지도 않고, 자격요건에서 밀리지도 않는다. 두 저자는 업무의 질이 아니라,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좀 더 미묘한 원인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대한 오래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시간에 경쟁 대상인 남성들은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쓴다. 골프나 점심식사, 술 한잔 함께 하는 시간 등 조직문화에 훨씬 더 쉽게 적응하고 회사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상급자들과 얼굴을 맞대는 일도 많다. 두 저자는 이처럼 여성들이 놓치기

쉬운 요소들, 즉 사내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계획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적절히 뽐내는 일, 조직의 정치적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세히 이야기한다. 이를 다양한 도표와 구체적으로 실천해볼 수 있는 계획수립 가이드, 일기장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 형태의 카드 등 참신한 형식으로 제시하여 여성들이 남자 동료들보다 일은 더 잘하지만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는 세부적인 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광범위한 조사와 자료수집이 바탕이 되어 여성들이 직장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현재 어떤 직위를 맡고 있든, 전체적인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조직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목차>

머리말. 무엇이 여성들을 뒤처지게 하는가?

서문. 여성들은 모르는 극비사항

1장.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하라

2장. 유대관계를 만들어라

3장. 강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라

4장. 규칙을 알고, 게임에 뛰어들어라

5장. 멘토 실력을 십분 활용하라

6장. 균형을 유지하라

7장. 영향력과 존재감을 드러내라

8장. 커리어 관리에 신경 써라

9장. 흑인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

부록. 남자들의 관점: 남성은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해결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맺음말. 미래: 리더십의 세 번째 얼굴

<저자 소개>

몰리 D. 셰퍼드(Molly D. Shepard)는 여성들이 조직에서 고위간부직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업체 '더 리더스 엣지(The Leader's Edge)'의 창립자 겸 대표이다.

제인 K. 스텐러(Jane K. Stimmler)는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더 마케팅 엣지(The Marketing Edge)'의 CEO이다.

제목 : SUPERHUMAN
가제 : 슈퍼휴먼
저자 : Rowan Hooper
출판사: Little Brown UK
발행일: 2018년 봄
분량 : 90,000 words
장르 : 과학/유전학



- * 과학자 겸 저널리스트로 활발히 활동해온 「뉴 사이언티스트」 편집자가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과학적인 소재를 찾아 처음으로 완성한 저서
- * 영화나 소설이 아닌 우리 곁에 실제로 존재하는 ‘슈퍼히어로’ 이야기
- * 유전자 조작 기술과 인간이 지닌 특별한 능력의 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기회

올림픽 경기나 프로 선수들이 활약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를 보면, 보고도 믿기지 않는 기량을 선수들이 선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놀라움과 함께 의문이 떠오른다.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저럴 수가 있지?”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와 같은 충격과 감탄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열 개 국어가 넘는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나, 기억력이 엄청나게 정확한 사람,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극저온 환경을 견뎌낸 사람 등 그 유형은 다양하다. 과학을 전공하고 유전자 조작 기술에 깊은 흥미를 느껴온 저자는 이 놀라움을 인간의 유전적 특징의 측면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 인간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모두 밝혀진 후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잇따라 개발되면서 인류 전체의 미래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저자는 운동 능력을 비롯해 지능에 이르기까지 보통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유전자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이 현존하는 ‘슈퍼히어로’의 비밀을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설명한다.

천재라 불릴 만큼 지능이 뛰어난 사람, 사람이 그랬다고는 믿기지 않는 영화를 보면 우리는 왠지 작아지는 기분을 느낀다. 마치 덩치 큰 어른 앞에 선 아이가 된 듯, 왜 누군가는 저런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 그저 머릿속에 머무르는 데 그쳤다면, 유전 정보가 밝혀지고 유전자를 인간이 직접 조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이제는 타고난 재능의 유전적인 바탕을 분석할 수 있고, 이는 곧 마법처럼 여겨지던 특별한 능력에 현실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평범한 인간도 특정한 유전자를 ‘가질 수 있다면’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한다.

남들보다 젖산 처리과정이 빠른 사람, 태어날 때부터 근육량이 보디빌더처럼 엄청난 아기, 남들 다 걸리는 병에도 절대 걸리지 않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 등 남다른 유전자를 지니고 태어난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흥미롭다. 저자는 호기심을 절로 자아내는 놀라

운 사례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전자가 비상한 능력을 부여하는 비밀 열쇠라면, 유전자 조작 기술을 그러한 능력을 인위로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하도록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까? 인간에게 이로운 범위까지만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면 그 적정선은 어디일까? 저자는 최첨단 기술에 내포된 윤리적 딜레마를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목차>

1부. 사고력

1. 지능
2. 기억력
3. 음악과 노래
4. 말하기

2부. 행동

5. 생식활동
6. 용기
7. 질주
8.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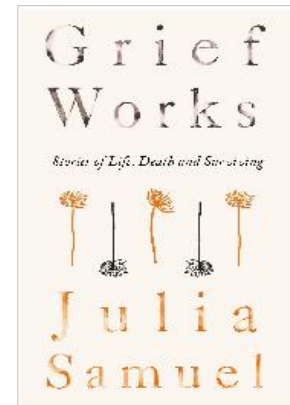
3부. 존재

9. 수명
10. 회복력
11. 깨달음
12. 행복

<저자 소개>

로완 후퍼(Rowan Hooper)는 「뉴 사이언티스트」 매거진에서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10년 넘게 과학과 의학, 기술 분야의 글을 작성해 왔다. 셰필드 대학교에서 생태학을 공부하고 진화생물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일본으로 건너가 국립 환경연구소에서 곤충 생태를 연구하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등 여러 간행물에 과학 분야 칼럼을 게재했다. 2004년과 2006년에는 일본어로 쓴 저서 두 권을 각각 발표하고, NHK 라디오방송에 매달 과학 정보에 관한 글을 제공했다. 이어 「워싱턴 포스트」, 「이코노미스트」, 「가디언」 등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GRIEF WORKS
가제 : 사별 이후
저자 : Julia Samuel
출판사: Penguin Life
발행일: 2017년 3월 2일
분량 : 296쪽
장르 : 자기계발



- * 25년간 슬픔을 다독여주는 상담사로 일해온 전문가가 전하는 삶과 죽음, 생존에 관한 이야기
- * 견디기 힘든 슬픔과 상실이 주는 영향과 그에 관한 오해, 건강하게 이겨내는 방법

죽음은 우리 시대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금기이다. 살면서 크게 실패한 사연이나 섹스에 관한 이야기,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신의 약점도 다 드러내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죽음만은 여전히 침묵의 영역에 속해 있다. 혹여 누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밖에 내면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 당혹스러워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죽음에 대한 오해만 키우고 다들 입을 다물다 보니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비통한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그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때 안심하고 “저렇게 잘 버티다니 대단하다”며 칭찬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풍조는 근본적으로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누군가가 죽고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일은 가슴을 찢는 일이다. ‘떠났다’든가 ‘잃었다’, ‘좋은 곳으로 갔다’와 같이 돌려서 표현한다고 해서 죽음의 아픔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는 아픔만 키운다. 저자는 가족 등 소중한 사람을 잃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이끌어주는 상담가로 20년 넘게 활약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수없이 접했다. 죽음을 대하는 현대인의 어색한 태도, 슬퍼하는 사람 앞에서 죽음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아야 한다고 여기는 부적절한 판단을 바꿔 보고자 저자가 처음으로 쓴 이 책은 죽음을 경험했거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지,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려주는 지침서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그 중에는 충분히 예견된 죽음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도 많다.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최소 다섯 명의 사람이 그 일로 영향을 받는 통계가 있으니, 매일 수백만 명이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수년이 흘러도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 기억할 만큼 큰 영향을 받는다. 인간의 유한성을 깨달은 경험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세상을 보는 눈, 남은 생애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의 죽음에 어떻게 대응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어가는 이후의 삶에 막대한 결과를 초래한다. 저자는 부모나 형제, 친구, 아이의 죽음

을 경험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죽음을 겪은 당사자와 주변인의 입장에서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슬픔이 북받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별이 한 사람에게 극단적인 악영향을 남기지 않도록, 인생사의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이 다양하게 제시된다. 죽음에 대한 깊은 오해를 풀어주고, 삶과 상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하는 유익한 안내서다.

<목차>

머리말

슬픔이란 무엇인가

슬픔의 역설

동반자의 죽음

부모의 죽음

형제자매의 죽음

자녀의 죽음

나의 죽음과 마주하는 일

믿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의 힘

친구와 가족의 힘

죽음, 죽어가는 일에 관한 역사의 시각

<저자 소개>

줄리아 새뮤얼(Julia Samuel)은 개인 상담소와 패딩턴 소재 세인트 메리스 병원에서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는 전문 상담사로 활약해 왔다. 1994년에는 아이를 잃은 가족들의 회복을 돕는 단체 'Child Bereavement UK'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제목: THE 2AM PRINCIPLE

가제: 새벽 2시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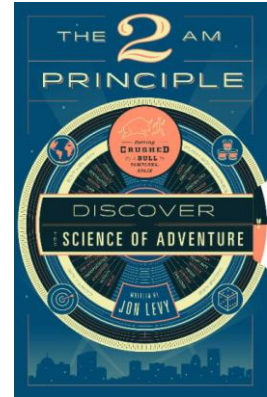
저자: Jon Levy

출판사: Regan Arts

발행일: 2016년 11월 8일

분량: 288 페이지

장르: 에세이/자기계발



- * “저자는 로버트 치알디니(『설득의 심리학』을 쓴 심리학자)와 인디애나 존스가 섞인 듯한 인물이다.”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School of Greatness』의 저자 루이스 하우스
- * “대단한 일이나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에 도전하고도 병원이나 철창 신세를 지지 않는 요령을 제대로 알려준다. 저자는 지루함을 물리치는 실력이 일등인 사람” – 베스트셀러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의 저자 AJ 제이콥스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시절 한창 술 마시고 노느라 늦게 다니면 부모님들이 이야기한다. “밤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일찍 좀 다녀라.” 미국에서는 같은 목적으로 조금 더 강한 협박이 들어간 말이 자녀에게 던져진다. “자정 넘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세월이 흘러, 이 표현에서 ‘자정’은 ‘새벽 2시’로 바뀌었지만 의미만은 그대로다. 흥겹게 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파티를 가든 클럽에서 놀든 새벽 2시가 지나면 인사불성이 된 사람들이 밤 거리를 배회하고, 도둑들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멀쩡히 운전하던 사람들도 피곤을 이기지 못해 차 사고를 낼 확률이 아주 높아진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에게는 가장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스페인 팜플로나에서 소 떼에 쫓겨 좁은 골목을 내달리며 목숨 걸고 탈출을 하거나, 술집에서 유명 배우를 만나 만취 상태로 젠가 게임을 하거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출발하는 리무진에 덩석 끼어 타고 남의 총각파티에 합세하는 일, 모두 저자가 새벽 2시 이후에 경험한 일들이다. 저자는 절대 잊지 못할 추억과 느낌을 선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대단한 경험’이라고 칭한다. 세계를 돌며 사람의 행동을 연구하고, ‘모험 모델’을 직접 만들어 인상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행동학자인 그는 다짜고짜 일단 뛰어들어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어마어마한 영광도 누리고,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계기도 발견할 수 있는 모험 가득한 삶을 이 책에서 적극 추천한다. 자신을 비롯한 전 세계 모험가들이 벌여온 좌충우돌 모험기와 함께,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그러한 도전이 왜 무궁무진한 즐거움을 안겨줄 수 밖에 없는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는다.

모험은 절대 우연히 시작되지 않는다. 걱정하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모험의

문을 활짝 열린다. 저자는 시대에 한 발 앞서 대담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부모님 덕에 꼬맹이 때 부터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그로 인한 달콤한 성과도, 쓰디쓴 실패도 제대로 느껴본 선배 모험가로서 일상에 갇혀 겁만 내는 현대인들에게 같이 놀자고 손짓한다. 꼭 미쳐야만 모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아가 될 필요도 없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발길을 돌릴 때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행동 전문가의 제안은 지루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일상을 신나는 모험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짧은 인생을 보다 충만하게, 신나게 살아보고 싶은 열정을 불어 넣는다.

<목차>

1장. 부동산을 정리하라.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1부. 출발

2장. 팀: 모험가들이여, 모여라!

3장. 장소: 어디든!

4장. 미션: 우려했던 대상에게서 영감을 얻어라

5장. 제약: 야간의 신나는 외출

2부. 한계 허물기

6장. 사회적 한계: 내가 너무 나갔나

7장. 정서적 한계: 영리하거나 한심하거나

8장. 신체적 한계: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생긴 일

3부. 상승세

9장. 도전: 우리에게 부족한 것, 만회할 수 없는 것

10장. 딱 한잔의 가설

11장. 문제 좀 일으켜도 된다

12장. 아마추어 딱지를 떼다

4부. 지속성

(이하 생략 - 총 16장과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존 레비(Jon Levy)는 행동의 영향과 모험을 연구하는 행동학자다. 신경과학과 심리학에서 밝혀진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마케팅, 영업, 소비자 참여, 제품 디자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 다양한 업계 리더들과 유행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업체, ‘인플루언서스 디너(The Influencers Dinner)’를 설립했다.

제목 : THE ROYAL ART OF POISON

가제 : 왕실의 독약 활용법

저자 : Eleanor Herma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6월

분량 : -

장르 : 역사



★ 유럽 왕실 시대 흥미로운 역사에 관한 저서를 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작

★ 정치적인 도구는 물론 아름다워지기 위해 사용되었던 독의 역사

독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때부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독의 역사는 권력의 역사”라는 말처럼, 연적을 없애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고, 유산을 앞당겨 받고 싶은 사람들이 독을 즐겨 찾았다.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데 독만큼 손쉬운 방법도 없었다. 음식에 독을 몰래 섞으면, 멋 모르고 먹은 희생자는 한두 시간 내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식중독이나 지병과 구분하기 힘든 증상을 보이며 죽어갔다. 왕정 시대, 유럽에서는 아직 젊은 왕족이 갑자기 숨을 거두면 독살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부검도 실시되었지만 당시 기술로써는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나 현대과학의 놀라운 발전 덕분에, 이들의 유골에서 뉘눅게나마 그 소문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왕과 왕비의 연애와 성 생활 등 유럽 왕실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주로 다루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저자는 중세시대, 감쪽같이 왕족들의 목숨을 앗아간 독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전한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독의 종류와 기발한 독살 방식, 슬며시 찾아오는 독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 그리고 현대 기술로 과거 독의 역사를 거슬러올라갈 수 있게 된 이야기까지 독에 관한 재미 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독은 식물에서 얻은 독이 멀쩡히 식사하던 왕가의 구성원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일이 잦았던 로마 제국의 초기와 중금속이 활발하게 사용된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에 특히 많이 사용됐다. 유럽 곳곳에서 나돌던 독살에 관한 소문은 원인과 범인 모두 실체를 밝힐 방도가 없어 사람들의 두려움만 커져갔다. 19세기에 이르러 독을 검출하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자 자연사와 독으로 인한 사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그제야 권력을 얻기 위한 독살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제는 유골만 있으면 얼마든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독살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현대의 노력은 그리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여전히 비밀이 많은 왕실의 반대 때문이기도 하고, 유골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것도 원인이다.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가 영국 성공회와 함께 왕족의 유골에 대한 검사를 끈질기게 거부해 왔다. DNA 분석 결과 왕비 자신의 DNA와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면, 통치권이 비합법적이라는 오명을 쓸 엄청난 위험이 두려워서라는 의견이 파다하다. 실제로 우연히 발견된 리처드 3세의 DNA는 후손들의 유전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이렇듯 독은 이제 권력을 얻기 위한 도구로는 거의 사

용되지 않지만 먼 옛날의 일들은 아직까지도 갖가지 재미 있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자는 중세 시대부터 오늘날 러시아 크렘린 궁에서 새롭게 탄생한 독에 이르기까지, 야망과 복수를 위해 활용된 독의 역사를 들려준다.

<목차>

머리말. 당신의 선택은?: 역사상 큰 인기를 얻었던 독과 중독 증상

1부. 독, 어딜 가나 독

1장. 암살과 독: 연회장 식탁부터 왕족의 속옷까지

2장. 독의 탐지, 사용법, 그리고 해독제

3장. 죽음을 무릅쓴 아름다움: 독이 든 화장품

4장. 유난히 쓴 약: 독이 든 약

5장. 부패한 왕궁: 유독한 환경

독인가 병인가? 왕족의 사인을 밝힌 기술과 용어 정리 - 동위원소비 질량분석부터 중성자 활성화 분석까지

2부. 독의 연대기: 과거 왕실에 돌던 독살의 풍문과 현대 법의학의 만남

1. 잉글랜드 존 왕(1166-1216)

2. 신성 로마제국 하인리히 7세 (1275-1313)

3. 중세 군벌, 델라 스칼라

4. 프랑스 샤를 7세의 정부, 아그네스 소렐(약 1424-1450)

(이하 생략 - 25번까지 이어짐)

3부. 현대사회와 독

1. 관심 밖으로 멀어진 독

2. 모스크바의 현대의학: 독의 재탄생

결론

<저자 소개>

엘레노어 허먼(Eleanor Herma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SEX WITH KINGS』과 『SEX WITH QUEENS』, 『MISTRESS OF THE VATICAN』을 쓴 저자이다. 2015년에 발표한 YA 시리즈는 1권 『LEGACY OF KINGS』부터 워너브라더스사를 통해 TV 시리즈로 제작될 예정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에 출연하여 역사적 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제목 : THE DEMOCRACY PROMOTION PARADOX

가제 : 민주주의 촉진 정책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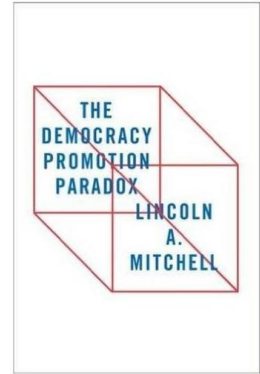
저자 : Lincoln Mitchell

출판사: Brookings Institution Press

발행일: 2016년 4월 12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정치



- * “미국의 민주주의 촉진 방식에 담긴 자기기만과 어리석은 판단, 해묵은 미국 식 긍정주의에 회의적인 시각을 던지며 현명하고 위트 있게 다룬 책” - 『The Freedom Agenda: Why America Must Spread Democracy』의 저자 제임스 트라우
- * “저자는 미국이 민주화라는 미션을 수행해온 과정과 모순을 날카로운 눈으로 조사했다.” - 콜롬비아 대학교 국제관계 교수 잭 스나이더

미국의 국가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더욱 민주적으로, 더욱 자유롭게 바꿔놓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특성이 되었다. 비민주국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민주화를 촉진한다는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저자는 그 과정에 수많은 모순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의 확산을 도맡은 사람이 민주주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할 것인가를 두고 좌익과 우익의 내부적 갈등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저자는 미국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목표가 탄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지난 10여 년간 이 야심만만한 정책이 걸어온 길을 이 책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쩌다 이제는 미국 외교정책의 요소가 되었는지 짚어본다.

저자는 민주주의 촉진 정책에서 발견되는 갖가지 모순점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흥미진진한 일을 만들고 보상과 효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저자는 지금까지 실시된 민주주의 촉진 정책의 단점과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결과로 크게 간과된 성과와 유익한 측면도 함께 다룬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는 민주화를 앞장서서 이끈다는 개념이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생소하게 여겨지던 시대에 그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맞닥뜨린 어려움과 그러한 장애물로 발생한 문제들을 성공적인 민주화 사례와 함께 다룬다. 전후 독일과 일본에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고 투표가 확산된 과정 그리고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뒤 동유럽과 아시아 일부 지역, 남미 지역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통합된 과정에는 모두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 저자는 부정부패와 여성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세태로 자칫 민주정부가 아예 탄생하지도 못했을 국가들에서 미국이 지원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충분히 다루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을 때 곳곳에 존재하는 정책적 모순을 집어내어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이 같은 분석을 중간점검 삼아, 앞으로 민

주주의 확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없애고 문제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이 비판적인 분석의 목적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촉진이라는 개념의 바탕이 된 미국의 관료주의적인 논리를 분석하며 향후 정책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하는 한편, 이제 미국이 더 이상 '패권국가'가 아닌 현실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와 과거와는 크게 다른 세계 정치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촉진해나가야 하는지 진단한다.

세계의 민주화를 위한 미국의 정치적 노력과 이론에 담긴 다양한 모순과 문제점을 밝히고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목차>

1. 머리말
2. 민주주의 촉진 정책, 냉전 이전과 냉전 시대
3. 냉전 이후의 민주주의 촉진 정책
4. 실행상의 모순
5.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촉진
6. 민주주의 촉진의 정치학
7. 민주주의 촉진과 미국의 파워
8. 민주주의 촉진 계획의 미래

<저자 소개>

링컨 A. 미첼(Lincoln A. Mitchell)은 민주주의 촉진 정책을 실행하고 연구해온 학자이자 저술가이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현재는 「뉴욕 옵저버(New York Observer)」의 정치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Uncertain Democracy: U.S. Foreign Policy and Georgia's Rose Revolution』 (2008)과 『The Color Revolutions (2012)』 등이 있다.